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치졸한 국민의당 작태 스트레스다

무서운 집단이다. 일부 구성원들 또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

죽어간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누가 그렇다는 말인가. 최초로 죄를 고백한 것도, 저지른 것도...

핵심이 되었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겠는가. 그것도 투표일 3일 앞두고 저지른 만행...

그동안 지역민들은 견전한 다당제를 원했다. 서로 경쟁을 해야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지역민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社說

적조 예방에 최선 다해야

'여름철 불청객'인 적조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예년보다 빠른 7월 중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당국이 모의 훈련을 하는 등 사전 대응에 돌입했다.

여기에다 대마나류가 우리나라 해협에 유입되면서 적조 발생에 용이한 환경도 조성됐다. 대마나류는 쿠로시오해류로부터 분리돼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진입하는 난류이다.

기고

강종문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성범죄, 예방이 최선이다

무더위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가는 우리에게 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이 밀려온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행·성폭행 등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거나 방어운전을 함으로써 또는 집을 비울 때는 출입문을 잘 시정하고 성범죄관련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역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하여 성범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堅持雅操

堅持雅操

▷ 뜻: 맑은 절조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임.

湖南新聞 本 社: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 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